

삼성석유화학, 삼성-BP 합작 전환

Mitsui, 5% 지분 매각 ... 양대 지배주주 체제로 의사결정 단순화

삼성석유화학(대표 허태학)이 최근 호텔 제주신라에서 열린 제29차 정기주주총회에서 CJ와 일본 Mitsui의 보유 지분 25%를 자사주 형태로 매입해 소각기로 했다.

이에 따라 삼성석유화학은 삼성과 BP가 50%씩의 지분을 보유하는 양대 지배주주 체제로 변모하게 됐다.

Sumitomo Chemical과 합병을 앞두고 있는 Mitsui Chemicals은 합병 전 사업재편 차원에서 삼성석유화학 지분 5%를 매각했으며, CJ는 비주력사업 지분매각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주력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삼성석유화학 지분 10%를 매각기로 했다.

삼성석유화학의 지분 매각-소각 결정은 비주력·비지배적 주주의 지분을 매입·소각해 삼성과 BP 양대 지배주주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주주 간 의사결정 과정을 단순화 하고 회사의 장기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는 분석이다.

<Chemical Journal 2003/03/31>